

기획 특집 **일곱교회**

- 에베소 교회
- 서머나 교회
- 버가모 교회
- 두아디라 교회
- 사데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2)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10~11)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회의 상임총재
-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도 책망도 아닌 권면의 말씀을 들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회로 인한 훼방을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목자와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에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 1.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3년 동안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나타내셨습니다. 장차 십자가에 달려 운명할 것과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칼에 목을 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툭에 켜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를 자청한 이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순교의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기에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니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함께 목격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소망 가운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했기 때문에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말로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나났기에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막 16:20).

### 2. 오늘날 서머나 교회와 같은 경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서머나 교회와 같은 입장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특히 북한에 들어가 하나님 권능을 나타낼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은 지 이미 6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북한에는 우리의 부모, 형제, 일가친척 등이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3) 고백할 만큼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 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리면 남다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많은 선교사와 일꾼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들어가게 됩니다. 막상 북한에 들어가면 생각한 것보다 경제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순교해야 하는 상황까지 만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부요하면 주변의 환경과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부요하다는 것은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고후 6:10).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요함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 3.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장차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전까지는 여러 시험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영육 간의 부요함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과 환난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며, 아직 진리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시험과 환난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약 1:2-4).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 오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순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난·청년·배울·미리애]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찾아오기대회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